

수년간 허가 안 받고 오름 불농기

도 감사위, 4일 들불축제 감사 청구 2건 결과 공개 산림보호법 구역인데도 허가 없이 8차례 행사 진행 정의당 등 “행정이 법 무시… 공식 사과·재발 방지를”

제주시에서 최근 몇 년간 제주들불 축제를 개최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새별오름 불농기 행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감사 청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를 청구했던 정의당 제주도당 등에서는 새별오름에 불을 놓는 불법적 관행이 오랜 기간 묵인되어 왔으며 제주도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1월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에서 각각 요청한 들불축제 관련 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4일 도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건의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에서 청구한 건에 대해선 오름 불농기 등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오름 불농기 행사 부지는 2012년 4월 초지에서 제외돼 일부분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인접지역

에 포함되면서다. 이 구역에서는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사유 등에 해당할 때에만 불농기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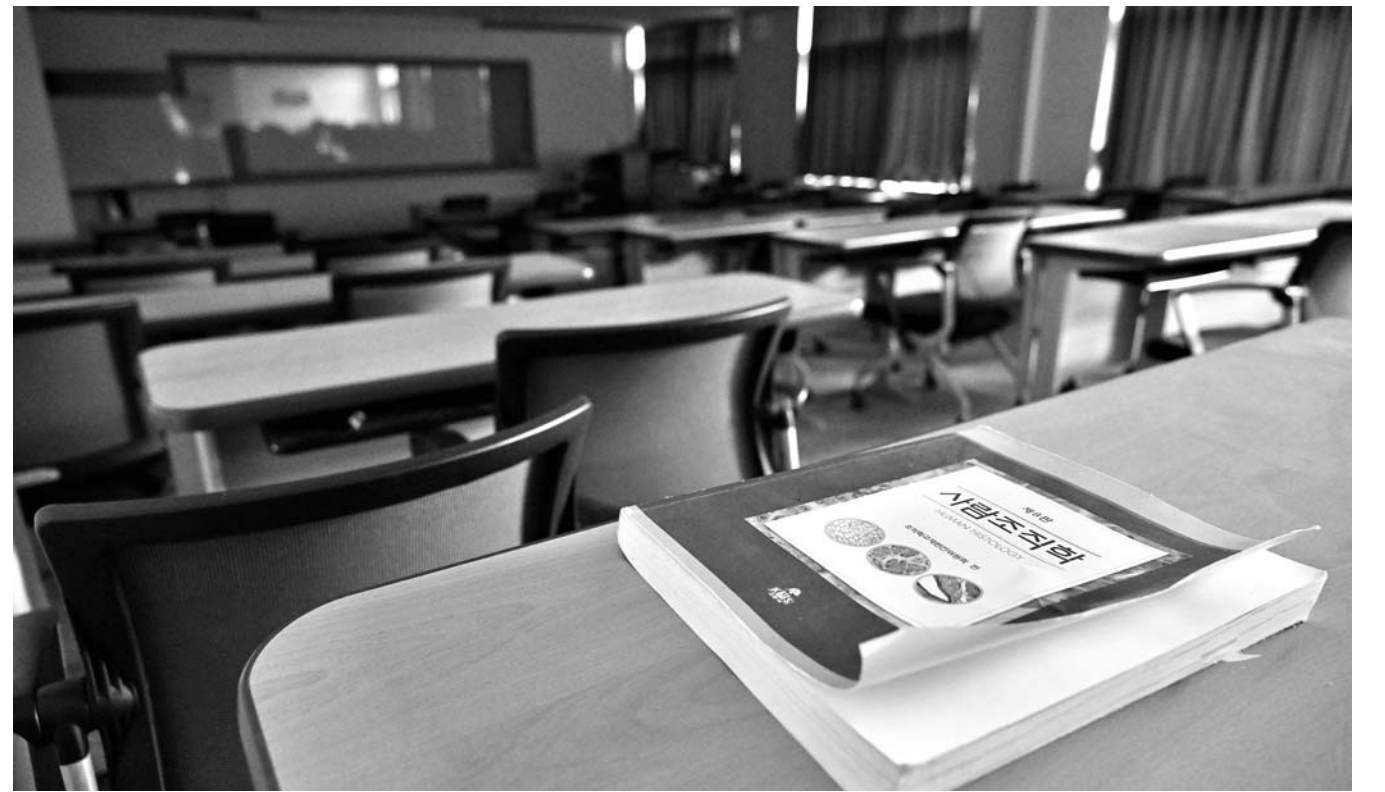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서는 들불축제를 추진하면서 2013년부터 총 8회(2013~2019년, 2021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오름 불농기 행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또한 애월읍에서는 제주시에서 2020년과 2023년에 들불축제에 따른 불농기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산림보호법령상 불농기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각각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가 청구했던 제주시의 들불축제 속의형 정책 개발 추진 방법은 부적절하며 제주시 담당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원탁회의로 한다’고 결정한 사항과 다르게 ‘공론 조사’ 방법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다만 결과 왜곡은 확인되지 않았고 정책 방향

결정은 제주시장의 권한 범위에서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새별오름 불농기는 산림보호법 위반임이 드러났다”며 “새별오름은 산림이며 산림보호법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 공식화되었다. 이는 더 이상 갑론을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적 허가 없이 불농기 행사가 진행되었음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이 오히려 법을 무시한 것이다. 제주시장에 대한 주의 요구는 책임 있는 조치로 보기 어렵다”라며 “새별오름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환경평가법을 위반했음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번 역시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제주시정은 공식 사과하고 제주시와 관련 부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별오름 불농기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재조사하고 절차적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제주시가 유사한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2025학년도 제주대학교 의과 대학 개강 첫날인 4일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김희만기자

계속되는 의정 갈등… 의대 교육도 파행

의대생 휴학투쟁 이어지며 제주대 본과 4학년 개강 연기 25학번 신입생 72명… 학칙상 입학 후 첫학기 휴학 불가 “선배들 도움 받아야 하는데 수업 거부 안하기도 애매해”

“다들 1학기 제주에 가서 수업 들으시나요? 수업 거부를 해도 된다 고해서 고맙습니다.” “실문조사에도 수업 거부 방식으로 의료정상화에 참여할건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의대는 워낙 직장까지도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족보 같은 것도 결국 선배들한테 도움 받아야 해서 수업 거부를 안하기도 애매해요.”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대 교육 현장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25학번 신입생들은 수업 참여 여부를 두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고,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않아 제주대는 본과 4학년 개강 시점을 오는 31일로 연기했다.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일인 4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건물 안에는 적막감이 맴돌았다. 개강날 학생들이 활기를 띠어야 할 캠퍼스는 오히려 한산한 분위기였고, 교수님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

져야 할 강의실은 불이 꺼진채 작은 소리조차 들려오지 않았다. 추추적적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친구와 우산을 나눠쓰며 환한 불빛이 쬐인 강의실을 향해 가는 다른 학과 신입생들의 모습과는 다소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제주대 본과생 1~4학년 중 수강신청을 한 학생은 8명에 그쳤다. 의예과의 경우 2학년 3명이 수강신청을 했으며, 25학번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24학번 1학년은 아무도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4일 제주대 측은 신입생 72명(정원 외 2명 포함)은 전부 수강신청을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할지, 선배들을 따라 휴학에 동참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제주대학교는 학칙상 군 휴학 등을 제외하고는 1학년 1학기 휴학이 금지돼 있다. 여기에 정부는 학생

들의 휴학 승인을 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학칙대로 적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올해 신입생은 의대 증원이 될 것을 알고 입학했으므로 증원을 이유로한 동맹휴학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25학번들은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군 입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업 거부 때문에 군 입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수강신청도 망해서 그냥 입대하려고 한다”면서 군 휴학을 문의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이밖에 선배들과 수업 거부에 동참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신입생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대는 본과 4학년 개강 시점을 오는 31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대 관계자는 “본과 4학년을 제외한 의예과 1·2학년과 본과 1·2·3학년은 예정대로 오늘(4일) 개강했다”면서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이 오는 7일까지이고, 복학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라 수업 참여 학생 수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10년 후 AI·자율주행차 제주서 운행”

제주자치경찰,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오늘 보고회… 스마트 대중교통 통합서비스 제공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스마트 대중교통 통합서비스를 통한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가 도내 도로를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25~34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5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이번 용역의 최종보고회에는 자치경찰단과 도·행정시 교통부서,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전문가 관계자 60여 명

이 참석해 향후 10년간의 미래 교통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자치경찰은 이번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의 스마트 대중교통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자치경찰은 단기 계획(2025~26년)으로 기존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 확대와 도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확대·고도화

에 나선다. 이어 중기(2027~29년)에는 초기 도입 서비스의 확장을 통한 서비스 양적 확대를 비롯해 기존 서비스와 연계 가능한 신규 서비스 도출 및 통합·개방 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주력한다. 장기(2030~34년)에는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함께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도입 등에 나설 계획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의 비전을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위한 디지털 교통체계로의 전환 실현’으로 정했다”며 “이를 통해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교통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규탁기자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윈터프린스



탐나는봉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토묘, 일반묘)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하례조생 / 미래향 / 제라온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토묘, 일반묘)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궁전조생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몬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포토묘, 화분묘, 일반묘)

하귤 / 팔삭 / 세미늘 / 금귤 / 당유자 / 머틀립오렌지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감귤 무병묘 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생산, 모수포 보유)

보조사업 묘목공급 지정업체 (원지정비의 지원사업 서류가능)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점!!!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토묘, 화분묘 분양 ◆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화시판매 가능 ◆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010-4736-2479 / 010-6500-23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로 991번길1(수산리735)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5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3,0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윈터프린스 /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토묘 >

도내 최대 <포토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카라향 / 황금향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 외 다수 품종



**2025년 예약 중
무병묘 / 포토묘
보조사업 가능**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